

Today Chart Bond

2026. 8. 19

채권 우혜영

whydele@ls-sec.co.kr

美 재무부, 오는 9월 9일부터 바이백 규모 한시적 증액

Treasury Announces Increased Sizes of Nominal Long-End Liquidity Support Buybacks Beginning September 9

August 19, 2026

WASHINGTON, D.C.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is increasing, by at least double, the size of liquidity support buyback operations for longer-dated nominal coupon securities (the 10-year to 20-year sector and the 20-year to 30-year sector). The current maximum size of \$2 billion per operation will be at least \$4 billion per operation.

This change is effective September 9, 2026 and will be in effect for the remainder of this refunding quarter (through November 4, 2026). Treasury will provide more information about future buyback sizes at the next Quarterly Refunding, scheduled for November 4, 2026.

This increase in buyback operation sizes reflects Treasury's desire to provide greater liquidity support in longer-dated nominal sectors where there is consistent strong sponsorship from market participants, as evidenced by the significant volume of high-quality offers Treasury routinely receives in longer-dated buyback oper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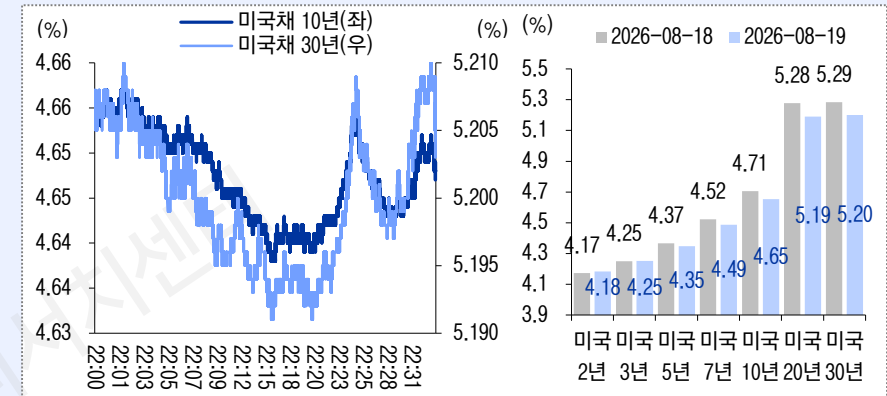
An updated tentative Treasury buyback schedule will be released at a later date.

- 현재 회당 최대(maximum) \$20억인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at least) \$40억으로 증액
- 장기물 이표채(잔존 만기 10년 ~ 20년, 20년 ~ 30년)를 대상으로 함
- 오는 9월 9일부터 적용되며, 다음 QRA에 발표되는 11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 향후 바이백 규모에 대한 추가 정보는 11월 4일에 제공할 예정
- 바이백 규모 확대는 장기물 국채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무부 의지를 반영
- 시장 참가자들의 꾸준하고 강한 참여를 반영한 것. 재무부가 장기물 바이백 운영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우량 매도 제안을 받고 있는 점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

주: 전일 대비 금리는 장중(오후 10시 58분) 데이터 기준

자료: US Treasury,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바이백 규모 증액 발표 후 하락한 금리



Key Point

- **재무부의 깜짝 바이백 증액 발표에 장중 장기~초장기 금리 일제히 급락**
 - 전일 대비, 5년물 -1.9bp, 7년물 -3.7bp, 10년물 -5.2bp, 30년물 -8.3bp 하락
 -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30년물 금리 상단을 5.3%로 설정하고 방어할 것이라는 기대. 향후에도 장기물 금리 급등 시 재무부의 대응을 기대하게 만듦
- **재무부가 바이백 증액에 나선 진짜 이유?**
 - 최근 미국채 초장기물 중심의 금리 상승 압력이 과도하게 확대됨에 따라 추가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
 - 7월 31일의 美-日 정부의 엔화 공조 개입 역시 미국 정부의 속내는 결국 엔화 약세가 촉발할 수 있는 미국채 장기 금리 상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함 (엔화 약세 → 일본 내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 확대 → 엔화 절상 필요성 → 日 보유 미국채 매각 → 美 장기 및 모기지 금리 상승)
 - 특히 스코트 베센트 재무 장관이 FIMA Repo 기구 규모 증액 언급한 것도 궁극적으로 미국채 매도를 최소화하기 위함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우혜영)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LS 증권